



BERITA MALAYSIA



2009년 7월 6일
제 7호



RaonAtti

드디어 오셨다.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반가운 손님들이 말레이시아를 다녀갔다. 그 인물들은 바로 송진호 실장님을 비롯한 KB은행에 홍공표 과장님과 진광표 팀장님. 평가단으로서 말레이시아팀을 중간평가하기 위해 오셨다.

25일 저녁 KL YMCA에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팀원들간에는 평가단을 만난다는 사실에 다소의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송진호 실장님과 홍공표 과장님, 진광표 팀장님과 함께 농담도 하고 다른 팀 이야기도 하다보니 긴장감은 어느새 반가움으로 바뀌어 있었다.

드디어 26일. KL YMCA 스태프들과 평가단, 베다니 홈 관계자 분들 앞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 됐다. KL YMCA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여자 팀원들이 일하고 있는 PMY 소개와 시찰, 베다니 홈에 대한 소개, 팀 활동에 관한 프리젠테이션, 개인 프리젠테이션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리 팀은 라온아띠 말레이시아라는 하나의 팀으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해 설명한 뒤 한 사람씩 각자의 느낌과 생각을 발표하였다. 다들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준비가 있었기에 자신의 방식대로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렇게 발표가 끝난 뒤 송실장님과 홍공표 과장님, 진광표 팀장님은 “누가 누구를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 시간을 통해 단원들은 단원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해 되돌아보고, 우리들은 우리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란다” 라고 말씀 하셨다.

평가단이 떠난 지금도 그 말이 생각난다. 이번 평가는 우리 팀원들 스스로 그동안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한 좋은 기회였다. 이것은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우리들의 활동에 좋은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채애원

쿠알라룸푸르의 숨은보석



쿠알라룸푸르의 자랑 Lake garden은 라온아피 말레이시아 팀이 머무르고 있는 YMCA-KL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호수공원은 하나의 커다란 공원 복합단지이다. 호수만 놓고 본다면 만 파지고 보면 우리나라 일산의 호수공원보다 작지만, 그 주변에는 산림 연구소, 난초 정원, 사슴 공원, 습지공원, 우주과학관, 이슬람 문화 박물관, 새공원, 나비공원, 경찰박물관, 국립 모스크 등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이곳에 들어서면, 도심속 일상의 찌든 매연과 답답함을 한번에 날려보낼 수 있다. 넓은 호수, 깨끗한 공기, 시내에서 듣기 힘든 새소리, 이 곳이 외국임을 실감케하는 다양한 열대 수림들...호수 공원을 한가로이 거닐다 보면, 과연 내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평온하다.

매일 저녁 회의가 끝나면 우리 라온아피 말레이시아 팀원들은 종종 삼삼오오 호수공원으로 향한다. 이 곳에서 가벼운 조깅과 운동, 산책을 즐기기에 워해서이다. 해가 질 때 호수공원은 더욱 아름답다. 석양이 흠어지는 호수와 그리고 그 호수를 가르느 분수, 조깅하는 내 옆을 지나가는 알지 못할 이름의 동물들, 여기저기 지저귀는 새소리, 조깅하며 마추지면 미소와 눈인사를 보내는 이 곳 사람들.. 자발적 가난을 외치던 자원활동가로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호수 공원은 또 매력을 발산한다. 이슬람 양식의 건물들이 내뿜은 아름다운 조명, 이국적인 가로등 길, 멀리서 아련히 들려오는 이슬람 성전의 기도소리가 어우러져 다시 한 번 나의 마음을 평온케 한다.

누군가 나에게 쿠알라 룸푸르를 방문한다고 하면, 해질녘 여유있는 이 곳의 산책을 추천하고 싶다. 다른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의 한가로움과는 또 다른 말레이시아만의 향기가 호수 공원에는 서려있다. **김근태**

PMY를 소개합니다



베다니 홈 활동을 마치고 KL YMCA로 옮겨온 말레이시아 라온아피 팀은 MAB(Malaysian Association for the Blind)와 PMY(Pusat Majudiri YMCA)라는 두 단체에서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중 김보영, 채해원, 서윤선 단원이 일하게 된 PMY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PMY는 청각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Pre-school(청각장애인 아동만을 위한 유치원), 말하기 치료, 수화 수업, 직업 상담 및 구직, 아동, 청소년, 성인 청각 장애인을 위한 친목 모임, 청각장애에 관한 워크샵 등 20여가지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청각장애인들이 장애를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자세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PMY 부서에는 청각장애인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PMY부서 직원들 뿐 아니라 YMCA내 다른 부서 직원들도 기초적인 수화를 익혀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PMY에서는 일반인들의 청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수화수업, 워크샵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보통 수화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 일반인으로 이들은 보통 FOD (Friends Of the Deaf)라는 클럽에 가입하여 청각장애인들과 많은 교류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세 여자 단원은 PMY의 여러 활동 중 매주 화, 수, 목요일에 열리는Pre-school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기초적인 수화수업, 체육활동, 그림그리기, 만들기 수업등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보통 학생 부모님들이 수업시간에 함께 교실에 앉아 계시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 부모님들은 청각 장애인 자녀 교육에 관한 활발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 Pre-School이 열리지 않는 요일에는 PMY 부서에서 팸플릿 디자인, 문서 정리등의 일을 하고 있다. **서윤선**

한국문화 워크숍을 열다!



매주 수요일, KL YMCA 에서 ‘한국문화’ 를 주제로 1시간 30여분 동안 워크숍을 열고 있다. YMCA내 여러 모임 중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임인 SCC (Senior Citizens Club) 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으로 YMCA측에서 특별히 라온아띠 팀을 위해 구상한 프로그램이다. 김보영, 채해원, 서윤선 단원은YMCA측 스태프와의 회의를 거치면서 워크숍을 준비하게 되었다.



1주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지난 6월 24일 첫번째 워크숍을 열게 되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25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첫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모든 분들이 손녀같은 우리를 반갑게 환호해 주셨다. 영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은 관계로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면 스태프가 중국어로 다시 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미 한국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국 드라마등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해 친숙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마친뒤, 우리는 한국 문화 수업이라는 특징을 살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한글 이름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애, 조인성 같은 한국 유명배우들 이름을 준비하였고, 배우들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한 뒤, 직접 이름을 가르치도록 했다. 모두들 생각지도 않았던 한글 이름을 가지게 되서 즐거워하셨다.

그 다음 세션은 ‘한국 사이버 투어’ 로 한국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한국의 위치, 기후, 한글, 한복, 전통음식 등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하여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찜질방, 길거리 음식등 전통의 ‘한국’ 의 모습 뿐 아니라 현대, 요즘의 ‘한국’ 의 모습도 함께 설명하고자 했다. 특히 이 시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글에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 알 수 있었다. 간단히 한글에 관하여만 소개하고자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셔서 자음, 모음, 발음, 쓰는 법까지 설명을 하게 되었다. 첫날의 워크숍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다음주에는 세 단원의 고향 투어, 한국어 회화 수업, 아리랑 노래 배우기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윤선

